

기 순이익은 43% 증가했다. 자동차전용선사 H
egh Auto Liners가 신차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항로에서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의 Norden사는 건화물선 시장의 경우
전기에 비해 약간 저하됐음에도 불구하고, 탱커시
황이 겨울철의 수요증가 등으로 전기와 같은 수준
의 수익을 확보해 전체 순이익 증가를 가져왔다.

노르웨이의 Front Line Group의 건화물선 전
문인 Golden Ocean Group Limited(GOGL)사
는 하반기의 시황회복 트렌드가 지속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 중국의 철광석 및 석탄 수입증
가와 북반구의 곡물수요의 증가, 주요항만의 야간
항만체선을 들었다.

탱커 신조선가 시황등락에도 높은 수준 지속 시황조정에도 들어간 벌크선 신조선가도 강세

최근들어 유조선 및 부정기건화물선 시황이 가
파르게 등락을 거듭하는 등 전반적인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탱커
와 벌크선의 신조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조
선소가 싱가포르의 OCEAN TANKERS로부터
10만5,000DWT급 아프리카막스형 탱커 2척을 수
주했는데, 이 선박의 선가는 척당 6,000만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해운시황은 초호황세를 보였던 지난
2004년에 비해 크게 하락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신조발주에 신중함을 보이는 등 신조선시장이 전
반적으로 침체되는 듯 했으나, 벌크선에 이어 탱
커의 신조선가도 고가권을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막스형 선박의 신조선가는 선가시세 전
체가 피크를 이뤘던 금년 초 조선소측의 제시가
격 기준으로 6,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었다.

페어플레이지 온라인판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
르면, 상하이조선소가 최근에 수주한 아프리카막
스 2척의 납기일은 각각 2008년 6월과 12월이며,

선가는 6,020만달러 수준이다.

또한, 최근의 VLCC 선가시세는 지난 8월 한국
의 조선소가 이란국영선사인 NITC로부터 수주한
30만톤급 대형 탱커로서 수주가격이 1억3,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등 지금까지의 최고치 1억3,500
만달러로부터 4%전후 하락한 수준이다.

이번에 상하이조선이 성약한 아프리카막스의 선
가도 지난 7월까지의 성약 베이스의 선가에 비해
하락폭이 VLCC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는 등 해운
시황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선가수준은 여
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운선사들은 해상화물의 이동량이 당분간 성
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조선의 발주의
욕을 아직도 접지않고 있다. 다만, 드라이벌크와
탱커 모두 연말에 가서 시황 상승이 예상되지만,
작년에 비해 신통치 않는 시장상황 전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신조발주에 주저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의 조선 각사는 강재를 시작으로 하는
자재비의 상승으로 원가가 덩달아 상승하는 바람
에 선가의 대폭적인 하락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